

<서평>

Translating the Literature of Scripture: A Literary-Rhetorical Approach to Bible Translation

(Ernst R. Wendland, Dallas: SIL International, 2004)

안근조*

1. 들어가는 말

본서의 목적은 성서 본문을 문학적-수사학적 읽기를 통해 분석하고 번역하기 위한 제반 사항들을 토의하고 그 실천적 방법론을 제시함에 있다. 총 11장과 세장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성서를 문학으로 이해하고 번역함에 있어서 선행 과제로서 “문학” 일반에 대한 토의·정의, 의사전달의 수단, 문학 형식의 질, 방법론, 동기 등 하나가 진행된다. 특히, 성서 원문이나 번역 본문에 있어서 “문학성”이 얼마나 드러나 있는가에 관심의 초점이 있다. 제2장은 문학작품 연구와 관련된 과거의 그리고 최근의 연구 동향들을 살펴본다. 성서 번역 자체와 관련된 논의들뿐 아니라 일반 세속 문학 작품에 대한 논의들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제3장 이하부터 제6장까지는 문학 형식의 네 가지 중심된 특징들을 다룬다: 제3장은 구성 기술에 대해; 제4장은 예술 기술에 대해; 제5장은 형상화 기술에 대해; 제6장은 수사 기술. 제7장부터 제11장까지는 본격적인 번역을 위한 적용과 실제적 작업이 전개된다: 제7장에서는 성서 문학의 문학적-수사학적 연구를 위한 실천적 지침이 주어진다; 제8장에서는 수용언어에서의 구어체적이고 문어체적인 표현 기법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소개되어 있다; 제9장에서는 번역과 교육 방법론에서 문학적 관점과 방법론의 적용이 기존의 방법론을 어떻게 확대, 발전시키는가를 논의한다; 제10장에서는 실제적인 문학적 접근 방법의 적용으로서 시편 23편을 치체와(*Chichewa*; 중남 아프리카의 반투 언어) 언어로 분석·번역하는 과정과 그 실험의 결과를 소개해 놓았다; 제11장은 마지막 장으로서 문학적-수사학적 번역 실습 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였다.

* 감리교신학대학교 강사, 구약학

이어서 부록이 세 개 첨가되어 있는데 부록 A는 제10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 샘플들을 실어놓았고, 부록 B는 시편 1편에 대한 또 다른 문학적-수사학적 분석과 여러 가능한 샘플 번역문들, 부록 C는 말라기서에 대한 일반적인 문학적-수사학적 관점을 귀납적 교육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다.

2. 〈제1장: 성서와 성서 번역을 위한 문학 연구〉

본서의 저자인 에른스트 벤트란트(Ernst R. Wendland)는 문학의 정의로부터 문학의 세 가지 중심 요소를 지적한다. 그것은 형식(“산문 또는 운문”), 내용(“가치”), 그리고 기능(“감화력”)이다. 그런데 문학을 논함에 있어서는 평가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게재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즉, 미적 차원이나 상상력 또는 주관적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영향력, 호소력, 또는 관련성 등에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관성의 개입으로 인해 보다 더 객관적인 정의가 요청되는데 로베르트 드 보그란데(Robert de Beaugrande)의 “언어의 시적 사용”에 주목한다. 이 시적 사용에는 다면성(어의에 있어서), 다기능성(실제적인 영역에 있어서), 고밀도 결합성, 확장된 문법과 어휘의 사용(새로운 의미 부여를 포함), 그리고 전형적인 “독자의 기대에 대한 반전”(즉, 본문 전개상의 충격 요법과 심미적 기법 등을 통하여) 등이 있다. 이외에도 알론소 쉐켈(Alonso Schökel)의 문학 언어의 상징성과 모호성, 그리고 기드온 투어리(Gideon Toury)의 언어의 문화적 사회성이 더불어 강조되고 있다. 벤트란트는 성서가 이러한 문학적인 정의에 부합하는 작품들을 담고 있기에 성서 본문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세속적인 문학작품 분석에 사용되는 방법론적 원리들과 절차들이 동원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성서가 어느 범위까지 문학성을 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벤트란트에 의하면, 성서의 문학성을 인정하는 범위는 주로 다음과 같은 문학적인 양식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확장된 작품 구성의 패턴화(의도된 좌우대칭 형태); 의미상 내용과 실천적인 의도에 있어서 동사 형태의 유용성; 암시의 반복적 출현과 개념적으로 풍성케 하는 간 본문 읽기를 통한 다양한 표현 방식들의 사용; 본문의 주제를 드러내는 역동적인 때로는 드라마틱한 방식; 사실적이고도 풍부한 이미지화와 상징화 그리고 환기시키는 비유적 언어들의 사용; 메시지를 부각시키고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리듬감 있는 표현과 소리상의 연상 작용을 포함한 특수 청각 장치의 잦은 빈도; 수사학적으로 합성된 양식에서 자주 나타나는 다양한 문학적 장르들; 응집력과 흥미, 영향력과 호소력을 불러내기 위한 위에서 언급된 특징들과 관습들을 본문 내에 짜깁거나 병렬시키는 기술 등. 그러나

그렇다고 성서가 전적으로 “순수한” 문학 작품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적 문서인 성서는 본성상 신학적이고 영적이며 도덕적이다. 성서 내 각각의 작품은 이러한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 봉사하고 있는 “응용” 문학이라 할 수 있겠다.

벤토란트는 본서에서 시도하고 있는 문학적-수사학적 접근의 방법론적 특징을 다음의 여덟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로, 이야기 중심 그리고 장르 중심의 방법론으로서 한 본문의 구성적 성격들을 강조하며 연구한다. 둘째로, 실제적-기능적 접근으로 원본문 저자나 번역자의 특별한 의도를 밝히는 데 관심을 둔다. 셋째로, 이 방법론의 전제는 성서의 저자가 특별히 동기화된 문학적 형식이나 작품의 플롯 구성을 통해 본인의 의도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넷째로, 번역자의 성서 해석의 배경적 틀을 주의해서 관찰하는데 이는 문학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문화적 요인 때문이다. 다섯째로, 성서 이야기의 예술적이고도 수사학적인 측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여섯째로, 성서 본문의 청각적인 영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일곱째로, 주된 문학의 형식적 속성들을 다음의 세 가지 긴밀한 관계 내에 있는 특징들을 통해 파악한다: 통일성, 다양성, 수사성; 구조, 형태, 사전 배경 설정(*foregrounding*); 이미지화, 음성효과, 극적기법(*dramatics*). 여덟째, 성서의 각각의 책들을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특한 종교적 작품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문학적-수사학적 방법론은 청자들에게 온전한 의미전달과 간언어적 의사소통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왜 문학으로서의 성서를 연구하고 번역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동기와 관련하여, 벤토란트는 본문의 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 원래 성서의 저자가 그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정한 문학적 형식에 주목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왜냐하면, 내용과 형식의 긴밀한 관련으로 인해 문학적 매개체에 대한 부주의는 곧바로 의미들의 세밀한 짜임체로서의 본문의 내용들을 간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학적 비평가들에 의해 주장되는 바, 성서가 상당한 수준의 문학적 기술을 도입하고 있기에 이를 분석하고 번역하는 번역자들 역시 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벤토란트가 소개하는 대표적인 문학적 성서비평방법은 다음과 같다: 저자의 설득 기술을 다루는 수사학적 비평방법; 본문의 열개와 짜임새에 관심하는 형식주의와 구조주의 비평; 독자와 신앙공동체의 반응에 관심을 두는 독자비평 방법; 그리고 개인별로 제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해체주의 비평 또는 포스트모던 비평이 있다. 벤토란트는 끝으로, 번역 작업에 있어서의 목적을 환기시키고 있다. 즉, 번역자는 그들의 번역된 본문이 읽히고 사용될 공동체의 본성과 필요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해서 번역계획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3. 〈제2장: 문학적-수사학적 번역의 특징들〉

본 장의 목적은 번역 방법론의 특성들을 기존의 문학적-수사학적 비평 이론에 근거해 밝히는 데 있다. 먼저, 성서를 문학적으로 해석하는 사조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하나의 “큰 진화”를 보인 사건으로서 특별히 제임스 뮐렌버그(*James Muilenburg*)의 1969년의 강연인 “양식주의와 그 너머”의 출판을 주된 계기로 본다. 이전에 성서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발생학적으로 연구하던 방향에서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문학적 표현과 수사학적 기술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다. 성서를 문학으로 읽는다는 것은 한 마디로, 어의상 의미 있는 내용과 어형상 특수한 형태를 갖춘 동사적 담화의 제 측면, 즉 표현력과 감화력의 영역들을 감상하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해석자는 독자의 지각과 감정, 정서와 태도를 자극하거나 호소하는 표현 장치들 즉 은유, 풍자, 역설, 또는 과장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서를 문학적으로 해석하는데 따라오는 장점 중 하나는 그동안 모호했던 본문이 문학적 형태와 구조를 파악함을 통해서 그 의미가 명쾌하게 밝혀지는 경우이다. 따라서 번역자는 원문의 문학적 기술에 대한 파악을 위해 전념해야만 한다.

벤토란트는 성서의 문학적 번역 이론과 적용에 도움을 주는 일반적인 문학적 번역 이론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다: 원래 원문이 구두로 낭독되었을 때의 리듬감과 소리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문자적 접근; 원천언어에서의 의도가 수용언어에서도 그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기능적 접근; 번역 자체가 보다 넓은 사회 배경과 또 좁게는 하나의 문학체계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진단적으로 쫓아가는 서술적 접근; 문학적으로 특수한(*markedness*) 형식이 드러나는 본문을 중심으로 그 반복도와 집중도에 따라서 번역문에서의 의미 창출의 정도를 결정하는 본문 언어 연구 방식의 접근(*textlinguistic approach*);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연관 작용을 통해 해석자가 본문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이해 배경을 형성한다고 하는 해석 이론을 번역 이론에 적용시킨 연관성 연구 방식의 접근(*relevance approach*); 언어의 감정적이고 함축적이며 또한 미적인 기능에 집중 본문이 오직 한 가지로만 해석될 수 없음을 전제하여 번역의 과정에서 현대적 표현으로 재해석하려는 해석적 접근; 번역된 본문을 원문과 입체적으로 비교하여 읽는 가운데 그 유사성과 상이성을 발견하여 수용언어 문학과 원천언어 문학과 의 관계선 상에서 얻을 수 있는 관점들을 반영하려는 비교 연구 방식의 접근; 문학적 번역의 목적은 출판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달성 목표가 있기에 번역자로 하여금 “충실한” 번역을 감당해서 그 책이 잘 팔리게끔 작업을 수행하는 전문적 접근 등이 있다.

문학적 번역의 가장 이상적인 목표는 성서가 전체로서 또는 각각의 본문에 있어서, 통전적으로 장르 대 장르(genre-for-genre)로서 번역문에 이전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번역과 이전”의 과정, 즉 성서의 저자가 의도했던 메시지가 시공간과 언어, 사상,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서 개념적으로 전이되어서 매우 다른 상황에서 언어적 표현으로 재조직 되는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 문학적 번역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복잡한 “매개적”인 활동과 관련되는데 다음의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번역가의 매개적 재구성, 언어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배경적 틀의 작용, 상이한 의사소통의 관습 고려, 가장 연관 깊은 매개체의 사용, 기능적 대응에 가까운 시도, 양식상 특징적인 측면 부각, 번역문을 읽을 독자나 공동체를 위한 실용적 목적 반영 등. 이러한 요인들에 의지하여 수용언어의 언어적 구조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분명한 예술적 특징들이 온전히 드러나는 문학적 번역을 꾀한다. 예를 들면, 구약성서의 탄식시를 치체와(*Chichewa*) 아프리카어로 번역할 때에 그 지방 언어에서 탄식 유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다카톨로(*ndakatulo*) 서정시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전적이고도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서 단어 하나하나에 구애되는 일대일 대응이 아닌 담화적 수준에서의 의사소통 방식을 고려하는 대응이 가능하다.

문학적-수사학적 번역과 관련하여 두 가지 주의사항이 언급된다. 첫째, 본문을 연구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예술적인 기술들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한다. 왜냐하면 기술적 측면의 과도한 관심이 원래의 본문의 의미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소한 형식 하나하나에 얽매이는 것을 경계한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이미지나 형태에 집착하다 보면 전체 문학세계의 개념적이고도 정서적이며 감각적인 인상을 간과하기 쉽기 때문이다. 더불어 벤트란트는 문학적 번역이 지방어들의 문학적 표현에 너무 친숙한 나머지 독자들이 처음에는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또한 기존의 공중 예배의 제의적 목적과는 다른 형식의 출현으로 인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한다.

4. <제3장: 성서의 구성기술>

구조학(tectonics)은 건축의 예술 또는 과학으로서 벤트란트는 이 단어로부터 구성기술(tectonicity)이라는 단어를 응용, 문학적 본문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의미 체계나 예술 조합을 의미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성서가 상이한 시대로부터 상이한 문학적인 층들의 조합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기록된 형태 그대로 하나의 단위체(unity)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학적인 전체임을 지적한다. 이에,

다음의 구성 예술적 차원에 대한 관찰이 요청된다: (1)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성서 전체의 이야기 열개 자체가 도도한 하나님 섭리의 흐름과 마침내 예수의 수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에서의 절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 (2) 하나님의 인간과의 관계의 본질과 성격 그리고 사건들에 본문 구성의 초점이 향해져 있는데, 특히 구세주요 온 민족의 주로서의 하나님이신 메시아-중보자의 인격에서 구현되었다는 사실; (3) 구성적 기술이 핵심어와 개념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주제, 동기, 그리고 이미지 등을 통하여 본문들 간에 정교하고 복잡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성들을 통해 각각의 본문들이 서로서로 명시적으로 그리고 암묵적으로 동시에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 벤트란트는 우선 본문 담화의 구성적 단위를 미시적 차원(micro-levels)과 거시적 차원(macro-level)으로 나누게 되는데, 본 장에서는 거시적 차원을, 다음 장인 제4장에서는 미시적 차원을 살피고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의 구성은 장르(genre)와 구조(structure)로 대변된다. 우선 장르에 관한 한, 벤트란트는 기존의 양식비평에서의 문학 양식적인 개념 위에 의사소통적 기능을 첨가하여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강조하고 있다. 즉 관습적인 문학 패턴의 사용이 특정한 형식적 관습들에 친근한 사회문화적 환경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 문학 형식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들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곳에서의 형식(form)은 보다 큰 의미의 구조들과 문학적 전개 of 전반적인 규칙들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둘째로, 구조에 관한 한, 담화의 전개(discourse arrangement)에 관심을 두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의 문학적 본문이 특정한 담화 “디자인”(discourse “design”)의 연합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 담화 디자인 또는 본문 구조학은 네 가지 단계와 네 가지 기술을 보인다. 네 단계(processes)는 분할 기능, 연결 기능, 투영 기능, 진행 기능이 있다. 네 기술(techniques)로는 회귀(recursion), 중지(interruption), 집중, 요약 등이 있다.

5. 〈제4장: 성서의 예술기술〉

성서의 예술기술은 본문의 담화를 다룸에 있어서 미세 구조에 관심을 둔다. 주요 과제는 본문의 작은 단위들이 어떻게 더 큰 구성 예술에 봉사하여 성서 저자의 의도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일이다. 여덟 가지 기술이 동원된다: 구체적인 이미지와 형태를 묘사하는 형상화(figuration); 이전의 자료들을 제시하는 문서화(documentation); 음성과 의미 그리고 구문 등의 반복(repetition); 생략이나 모호함 또는 요약 묘사를 통한 간결화(compaction); 형태나

내용에 있어서 수사학적 질문이나 역설, 과장으로 표현되는 일탈화(deviation); 발성법적인 효과나 의미 추구를 꺾이는 음성화(phonation); 충격적인 표현을 통해 감각적인 인상을 자극시키는 환기(evocation); 직접적인 인용과 직접적인 화법을 사용하는 드라마화(dramatization). 이러한 예술 기술을 통해서 본문 의미의 강화와 통일성 추구, 중심된 새로운 개념의 이해와 설득을 가능케 하며, 의미 강화와 체계화를 돕고 또한 본문의 의미를 기억에 각인시키는 효과와 생소한 의미를 친근하게 느끼도록 하는 효과를 얻게 한다.

6. <제5장: 성서의 형상화 기술>

형상화 기술(iconicity)은 벤트란트가 “이미지, 모양, 구현”을 의미하는 형상(icon)의 속성을 드러내는 형용사인 “형상의(iconic)”라는 단어에서 명사화한 용어이다. 바로, 성서 담화의 특징적인 이미지와 문화적 상징들, 이상적인 모델들 그리고 연설의 관습적인 양식의 기술들을 의미한다. 특별히 형상화 기술은 본문의 담화가 음성으로 전달되었을 때에 청자들에게 계속해서 각인되도록 의도된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한 형식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속성에 관계한다. 문학적 접근에 있어서 형상화 기술의 연구는 곧 문학적 전형에 대한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전형(archetype)은 인간의 개념과 이미지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락을 이루는 본질적인 패턴으로서 이를 본떠서 여러 복사본들이 만들어지며 때로는 같은 범주의 개개 단위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특징을 일컫는다. 즉, 전형은 가장 주요한 관습적 형상으로서 언어적 구조와 문학적 관습의 두 긴밀하게 연결된 체계 내에서 기능함으로써 의사소통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한다. 전형의 두 대표적인 특징은 구체성(concreteness)과 대비성(contrastness)이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21-22장에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의 개념은 창세기 1-2장을 암시하면서 동시에 기대되는 종말론적인 첨가가 드러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형에 대한 분석은 얼마나 신약성서의 이미지와 형상들이 구약성서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밝혀주고 있다. 그러나 전형의 분석은 단지 성서 내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성서 외에 일반적인 세계 문학들에 있어서도 그 상징이나 이미지 또는 형상화에 있어서 개념적이고도 정서적이며 인지적인 공명을 경험하게 된다. 형상화기술의 네 가지 영역으로서 또는 전형의 네 가지 차원으로서 상징들, 전형 인물 묘사, 전형 장면, 문학적-문화적 범주들이 있다.

7. 〈제6장 성서의 수사학 기술〉

성서의 수사학 기술은 문학 표현의 목적과 관계한 수사학, 즉 의사소통의 실제적 기능에 관계한다. 성서 문학은 하나님과 관계된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일정한 노선을 선택하도록 이끌기 위한 목적을 띠는 다양한 담화들의 연합이다. 문학적인 구성 기술, 예술적인 측면의 기술, 형상화 기술은 모두가 청자를 설득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다. 성서에 나타나는 수사학적 기술의 분석을 위해 동원되는 방법 으로서는 랍비/그리스도적 기술, 그레코-로만(Greco-Roman) 기술, 서신체 기술, 언어-행동 분석, 그리고 논쟁-구조 분석이 있다.

랍비/그리스도적 기술은 “예수께서 가라사대”로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담화 가운데 나타나는 수사학적 기술을 다루는 분석 방법으로서 이에 동원된 일곱 가지 기술은 다음과 같다: 권위적 태도; 예언자적 선포 양식; 지혜 전승; 대화법;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표현법; 청중 감화력; 시적 연설 구성. 그레코-로만 기술은 전통적인 수사학적-연설 기술로서 본문과 형식/기능 중심의 성향을 보여주는 수사학적 형식의 주요 요소들에 대한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본문의 범위 설정과 수사학적 상황에 대해 규정, 주요 문제 제시와 본문 분석 그리고 결론 도출에 이르는 과정 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영되고 있는 분석 기술이다. 서신체 기술은 앞선 그레코-로만 기술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어체보다는 문어체 본문에 더욱 특별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특별히 이 기술은 기존의 양식비평 방법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분석 방법으로서 본문 전체의 구성적 조합 양식과 사회 문화적인 배경과의 관계에 집중한다. 언어-행동 분석은 언어의 실제적인 측면을 고찰하는 것으로서 본문의 상호인격적인 작용과 상황적인 배경을 고려하는 분석법이다. 언어가 행동으로서 묘사되는 세 가지 측면에 관심을 두는데, 첫 번째는 언설의 순전한 형식과 내용에 관계하는 화법(locution), 둘째는 언어의 기능이나 의도에 관련된 발화(發話)수반 행위(illocution), 그리고 실제적 효과나 담화의 결과 양태에 관계하는 발화적 결과(perlocution)가 있다. 논쟁-구조 분석은 예언서나 서신서들에서 자주 나타나는 설교적-훈계적-목회적 본문들에 적용되는 방법으로서 문제 지적과 동기 부여, 호소 그리고 의도된 설득에 이르기까지 원인과 결과에 이르는 추론이 줄곧 진행되는 것을 추적한다.

8. 〈제7장 문학적-수사학적 분석의 기술〉

본 장에 이르러 벤트란트는 본문 중심의 문학적-수사학적 분석과 번역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게 된다. 먼저, 산문체가 아닌 운문체(예를 들면, 시가적, 예언적, 서신적 담화) 본문들에 적용되는 열두 가지 기술을 소개한다.

첫째, 본문과 본문 간 그리고 본문 외적인 배경에 대한 완벽한 연구가 요구된다. 즉, 주어진 본문 해석에 영향을 줄 만한 모든 정보들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추는 일이다. 둘째, 본문 전체를 읽고 본문의 전체적 양식과 개별적 형식들을 결정해야 하는 과제가 기다린다. 셋째, 본문에서 드러나는 회귀/반복의 모든 사건들에 대한 플롯을 짜보는 일이다. 동사의 회귀 보도의 다양한 양식들에 대한 완벽한 분석은 특별히 반복이 많이 나타나는 성서 해석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넷째, 담화 내에서 나타나는 모든 단속적인(disjunction) 부분들을 발견해야 한다. 앞서 반복이 본문의 연속성(즉, 응축과 일관성)을 가리킨다면 단속은 불연속성, 즉 담화 내에서 새로운 부분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다섯째, 문학적인 표현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부분들은 따로 떼어내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즉, 관련된 형상화나 은유와 직유적 표현 또는 확장된 이미지화 등 문학적 표현 장치들이 밀도 있게 드러날 때에는 본격적인 문학적-수사학적 담화 분석을 위해 다른 본문들로부터 구별하여 연구해야 한다. 여섯째로, 담화의 주된 구역 설정과 돌출 부분을 결정지어야 한다. 바로 본문의 외적이고 내적인 경계(demarcation) 뿐 아니라, 부차적으로 강조되는 영역(projection)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일곱째, 비로소 전체 본문의 구성적 구조의 열개를 작성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각각의 부분들은 문단으로 나누어지고 요약된 내용이 제목으로 부쳐지게 된다. 그리고 각각의 부분들은 전체적인 담화구조 내에서 그 주제 단락을 중심으로 서열상 배치된다. 여덟째, 하나의 완전한 어의적(단어/상징/동기) 연구를 위해 준비한다. 형식적인 구조가 일단 완성되었기에 이제 본문의 내용적인 차원 즉, 어의적 구조물과 인지적 조합을 관찰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주된 신학적인 개념과 다른 반복되는 표현들을 담화 내에서 고려해야 한다. 아홉째,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언어적이고 문학적인 특징들을 분석해야 한다. 앞서서 진행되었던 본문의 구조에 대한 형식적 연구와 주제에 대한 내용적 연구에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또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형식적 문학 장치들이나 구성적 기술들을 이제까지 발견된 결과들을 가지고 연구한다. 열 번째, 담화 내에서 주요한 언어기능과 그들의 상호작용을 주목해야 한다. 본문의 총체적 의미는 단지 내용(정보)만을 알아서 얻어지기 보다는 본문에 녹아 있는 감정과 태도, 가치와 목적에 의해서 결정된다. 열한 번째, 가능한 형식-기능적 대응을 얻기 위한 문학적-수사학적 비교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원문에 향하던 관심이 이제는 번역되는 언어와 그 문학에 돌려지게 되는 단계이다. 지금까지 원문에 행해지던 주제와 의미를 탐지해 내는 작업이 이제 똑같이 번역될 언어문학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목표는 최대한 가깝게

성서와 기능적 대응을 이루는 일이다. 열두 번째, 마지막 단계로서, 시험적 번역을 일차적으로 시도하고 그것을 다른 번역판들과 비교한다. 문자적인 그리고 내용적인 강조의 여러 번역본들과 비교한 후에 이제는 숙어적 사용과 구어체 중심의 번역판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산문체 본문들을 다룸에 있어서는 플롯구성 중심의 이야기 틀을 발견하는 것과 그 이야기 전개에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질문들에 답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사건들에 대하여 무엇이 핵심사건이고 그 핵심사건은 다른 사건들과는 어떻게 관련을 맺는지 그리고 어떠한 반전은 없는지를 살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등장인물에 대한 질문들이 필요하다. 누가 주된 인물이며 부차적인 인물인지, 이 인물들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으며 그 인물들의 성격이 정형화(round character)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단편적(flat character) 으로만 알려져 있는지 그리고 설화자(narrator)가 이야기 전개에 직접 참여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따른다. 셋째, 배경에 대한 질문이다.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지? 배경에 대한 설명 정도가 자세한가 아니면 간결하게 그치고 있는가? 그 배경이 사전설정(foreground)인가 사후설정(background)인가? 넷째, 본문의 수사학적 기법에 대한 질문들이 필수적이다. 특별한 수사학적 기술의 발견과 특정본문의 집중 여부, 어떠한 반복이 눈에 띄며 어떠한 언어행위가 유발 되는가 그리고 구어적 요소들의 발견과 수사학적 표현의 의미전달 효과 등에 대해 연구한다.

9. 〈제8장 수용언어 문학의 양식적 수사학적 특징 결정하기〉

번역 팀이 문학적-수사학적 번역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원천언어뿐 아니라 수용언어의 문학적 양식과 수사학적 특징들을 발견하는 일이 요청된다. 여덟 단계의 지침이 소개되어 있다. 먼저, 문학적으로 소질과 능력이 있는 번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팀을 구성하는 일이다. 둘째, 수용언어의 구어체와 문어체, 세속문학과 종교문학, 그리고 표준어와 사투리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다. 셋째, 모아진 자료들의 형식과 내용, 기능과 용도, 그리고 사용자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원천언어의 문학적-수사학적 특징들과 수용언어의 문학적 특징들을 비교하는 단계에 이른다. 다섯째, 형식이나 기능에 있어서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하여 최대한 원문의 의도된 의미에 맞추기 위한 문학적 장치를 수립, 보충한다. 여섯째, 수집된 직관과 통찰을 통해 수용언어의 근본적 메시지를 문학적으로 재창조한다. 일곱째, 초고 번역문을 검토하는 단계이며 필요하면 교정을 하게 된다. 여덟째, 번역문을 원문과 비교하며 평가한다. 한 가지 고려사항은 반

투 아프리카의 사회에서처럼 수용언어가 오래 된 문학 전통을 갖고 있지 못할 때에는 구어체적인 표현에 의지함으로써 성서 원문의 문어체적 표현과 차이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원문 자체가 주로 구어체적인 용법으로 사용된 점을 고려한다면 의사소통을 위한 기능적 대응을 위한 수용언어의 번역문은 그 문학적 발달 정도를 넘어서서 가능하리라 벤트란트는 지적하고 있다.

문학적-수사학적 번역작업의 최종 단계는 번역문과 원문 사이의 문학적 특징을 비교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비교 언어적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의사소통적 기능 또는 의도된 효과를 비교; 각각의 문학 양식과 관련된 근본적인 사회 언어적 배경 비교; 일정한 문학적 특징들의 발생 빈도수와 위치 비교; 전형적인 감정과 태도, 그리고 정서 비교; 각각의 문학 양식과 관련된 주제 비교; 각각의 문학적 특징과 관련된 담화 양식과 문학 구조 비교; 특징적 문학 양식과 더불어 나타나거나 또는 나타날 수 없는 다른 양식들 비교; 그 문학 양식과 결부된 세부 양식들 비교; 각 양식의 용법과 사용 영역 비교.

10. 〈제9장 문학적-수사학적 접근 교육하기〉

본 장에서 벤트란트는 문학적-수사학적 성서 접근을 번역자들에게 어떻게 전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학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먼저, 이와 관련된 일곱 가지 안내 지침을 소개한다. 첫째, 번역 계획의 목적에 있어서 문학적-수사학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원문에 대한 집중적인 문학적-수사학적 분석이 체계적으로 지도되어야 한다. 셋째, 수용언어에서 원문에 상응할 만한 문학적 양식을 결정하는 일이다. 넷째, 문학적-수사학적 번역문 초고가 감독자의 관할 하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섯째, 원문과 번역문 사이의 담화적 특징의 상응 정도를 중심으로 하는 비교문학이 진행된다. 여섯째, 초고에 대한 시험과 교정이 이루어지고 이후 소양이 갖추어진 번역위원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그리고 완벽한 평가를 거치게 된다. 끝으로, 주기적으로 번역 팀이 만나면서 재비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번역의 원칙과 절차 등이 개정되도록 한다.

이어 벤트란트는 문학적-수사학적 연구가 성서 번역과 갖는 관계성을 이야기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서 자체가 갖는 문학적 특성이 우리로 하여금 문학 중심의 분석으로 인도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문서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를 번역하기에 번역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성서 자체가 일반 문학과는 다른 종교적 권위를 갖는 문서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심미적 예술성과 드라마틱한 사건 전개가 성서의 부분들을 이루고 있다는 것; 정경 내에서의 본문 간 연관성이 해석의 울타리를 설정하고 있는 것;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다른 성서 번역문이 존재한다는 것; 성서의 수사학적 기능은 단순한 형식과 교육, 또는 흥미 위주가 아니라 진지한 계시와 설득, 확정과 동기 부여라는 사실; 성서 본문 가운데에는 크게 읽혀져서 회중들에게 듣게끔 할 목적의 구어체적 차원이 있다는 사실; 성서 내의 다양한 장르들과 문학적 형식들의 혼재와 동시에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심오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사실; 상당히 많은 양과 문학 형식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친구약 성경은 동시에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는 하나의 문서 그 자체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

문학적-수사학적 분석 이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몇몇 조심하여야 할 이론들이 있음을 지적한다. 먼저, 최근에 대두되는 독자반응 비평 방법은 원문 저자의 배경과 현재 독자 사이의 관계성을 부자연스럽게 단속함으로써 번역의 충실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반면에 고전적인 자료비평 이론은 그 형성사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현재 우리가 전수받은 마지막 정경의 형태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는 불필요한 이론이 될 것이다. 이에, 벤트란트는 본문 분석에 적용될 만한 네 가지 문학적 연구의 특성들을 번역자들에게 환기시키고 있다: 구성 기술적 측면; 예술 기술적 측면; 형상화 기술적 측면; 수사적 측면.

11. 〈제10장 문학적-수사학적 번역문 평가하기〉

번역문에 대한 시험과 평가는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수행된다. 첫째, 문학적 예술성이다. 문학적-수사학적 접근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관심 영역으로서의 문학적 예술성은 본문의 의미대응과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형식적 기법에 대한 연구가 크게 부각된다. 특별히 성서 본문의 구성적인 작법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한 시험과 평가가 시도되고 있다. 둘째, 청각적인 효과 차원이다. 성서의 전승 과정 자체가 구어체로서 들려진 것이라는 역사적 정황을 고려할 때에 번역문을 실제로 큰 소리로 읽으면서 그 의사소통적 전달 효과를 시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수용성에 관계한다.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분석 가능한 언어적이고 문학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라면 세 번째 수용성은 번역문을 읽게 되는 개인 각자에게 달려 있는 주관적 평가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보통의 독자들과 청자들에게 잘 알려진 본문을 접하게 하여서 수용성의 정도를 평가하는 일이다.

벤트란트는 시편 23편을 남동 아프리카의 현지 공용어인 치체와 언어로 번역

하면서 문학적-수사학적 번역의 과정과 그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먼저, 시편 23편의 대구조와 소구조를 살피는데, 대구조는 4절 중반절인 “내가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를 전환점으로 하여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음을, 소구조는 점차로 늘어나는 구절들의 길이를 통한 점진적인 확장이 의미의 진행까지 확대시킴으로써 4절 후반절과 6절 후반절의 저자의 강조점을 부각시키는데 봉사하고 있음을, 각각 관찰하고 있다. 이어 시편 23편의 히브리어 원문(MT)과 치체와 번역문에 대한 문학 양식적 비교문학을 진행한다. 히브리 운문체에 상응할 만한 치체와 언어의 문학 양식으로서 다카톨로(*ndakatulo*) 라고 하는 서정시 양식을 선택하여 표현하고 있다. 물론, 벤트란트는 히브리 운문체와 치체와의 다카톨로 사이에 문학 양식 상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양식의 기능상의 비교는 성서의 시편을 다카톨로 양식으로 묘사하는데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특별히, 기존의 치체와 성서 번역문과 다카톨로 양식의 새로운 번역문을 비교할 때에 문학 기법상 후자가 히브리어 원문의 수사학적 표현과 훨씬 가깝고 그에 따른 기능적 대응에 있어서 효과적임이 발견되었다. 물론, 다카톨로 양식의 세속성과 직접성으로 인해 성서원문의 의도를 훼손할 우려도 있으나 치체와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깊은 영적 감정과 문학적 심미의식에 호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문학적 번역 시도라 할 수 있다.

문학적 예술성에 있어서 다카톨로 양식의 가능성을 확인한 벤트란트는 이어 청각적인 효과 차원에서도 대부분의 다카톨로 양식이 구어적 배경 가운데 창작된 것이기에 시편 23편의 구어적 선포와 연관성을 지적한다. 수용성에 있어서는 사람들마다 나타나는 주관적인 결과의 다양성이 주는 평가의 부정확도를 줄이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1) 본문 내용에 대한 의미 전달의 정확도에 관계하는 충실성(*fidelity*); (2) 본문 저자의 의도에 대한 인지력(*intelligibility*); (3) 수용언어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번역문이 표현되었느냐와 관계된 효과적인 숙어적 표현(*idiomaticity*); (4) 원문 구조에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냐에 대한 구성적 근접성(*proximity*). 그러나 다카톨로 운문체의 자유로운 양식이 수용언어의 독자나 청중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며 적용될지에 대한 적용에 관계된 여러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서 남아 있음을 벤트란트는 인정한다.

12. 〈제11장 문학적-수사학적 번역사업 수립하기〉

벤트란트는 끝으로 번역사업 수립과 관계된 핵심적인 사항들을 토의한다. 우

선은 번역사업 이전 단계의 계획과 연구가 필수적임을 지적한다. 특별히 성서 번역문을 읽는 독자들의 관심에 준하여 본문에 대한 번역만을 감당할지(textual plan), 번역 외에 제목을 달거나 지도 등을 첨가해야 할지(paratextual plan), 또는 주요 사회적 이슈나 상황에 관계된 번역 계획을 진행해야 할지(metatextual plan)를 결정해야 한다. 이후에 구체적인 번역 팀을 조직하고 훈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 명이 한 팀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수용언어에 대한 전문가가 끼어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상적으로는 그 사람은 또한 성서연구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충분한 훈련을 겸비한 재원이어야 한다. 이러한 성서 학자와 더불어 성서 주석가 그리고 문학 비평가가 한 팀을 구성하게 된다. 이렇게 팀이 구성되면 일과에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작업진행에 합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절차는 번역 계획의 목적(*Skopos*)에 준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번역 팀은 계속해서 훈련된 비평 팀(reviewers)과 더불어 작업함으로써 번역의 질을 검토 받고 또 예상되는 독자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또한 독자들의 반응에 관계하여 실제로 일반 독자들이 대중적인 차원에서 번역 전문팀과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하여 그들 역시 번역문의 결과에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별히 이러한 번역 계획에 있어서 벤트란트의 강조점 중 하나는 수용언어의 숙어적인 표현과 수사학적인 효과, 그리고 예술적인 감각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도록 수용언어의 일반 독자들이 활발하게 번역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일이다. 이를 통하여 잘 번역된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놀라운(amazed)”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3. 평가

벤트란트는 『문학으로서의 성서 번역: 성서 번역을 위한 문학적-수사학적 접근』을 통해 지난 세기 후반부터 대두되고 있는 성서의 문학적 분석 방법과 기술을 성서 번역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본서에 대한 비평과 토의는 일반적인 성서주석의 문학적 비평 방법에 대한 논의 내용들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서평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성서 번역 이론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을 배경으로 하는 바, 벤트란트가 부각시켜주는 성서 해석과 번역에 대한 기여 그리고 한계점을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본서의 제목에서도 드러나는 바, 성서를 하나의 “문학”으로 환기시키고 있음에 그 장점이 있다. 즉, 성서 번역 자체도 문학적인 작업이기에 성서를 문학으로 전제하고 번역작업을 수행할 때에 그 문학적인 기법과 수사학적 기

술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성서의 문학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간과하였던 특별한 문학구성과 양식을 통해 성서 저자가 의도하는 의미를 밝혀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는 벤투란트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문학 형식과 문학 내용의 긴밀한 관계성에 대한 논의에서도 그의 문학적-수사학적 접근의 목적이 단순한 기술적 차원이 아니라 성서 내용의 신학적 이해의 심화에 있다고 하는 점에서도 명백해진다.

둘째로, 다양하고도 복잡한 문학적 이론을 실제적인 번역을 위해 메뉴얼화 시켰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사실상, 본서의 제1장부터 제6장까지의 문학적 분석을 위한 이론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이론들이 어떻게 원천언어에서 수용언어로 전이되는, 그 자체로서 복잡한 단계를 밟는 번역과정에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7장부터 전개되는 12단계의 문학적-수사학적 접근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제8장부터 제10장에 이르는 수용언어의 문학 양식의 특징 결정하기, 문학적-수사학적 접근 교육하기, 번역문 평가하기, 그리고 번역 계획 수립하기 등의 일련의 번역과정을 실제로 중남 아프리카의 치체와 언어로의 번역작업과 더불어 설명함으로써, 본서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통해 수사학적 성서 번역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특별히, 성서의 문어체적인 관점뿐 아니라 구어체적이고 청각적인 차원에서의 본문 분석과 번역에 대한 강조는 본서가 얼마나 실제적인 적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셋째로, 벤투란트는 티모시 윌트(Timothy Wilt)에 의해 최근에 대두된 바,¹⁾ 성서 번역의 문학 기능 동등성(literary functional equivalence) 이론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데 본서의 공헌이 있다. 번역이 더 이상 문자 대 문자로의 내용상의 대응이 아닌 기능에서 기능으로 의사소통상 대응되어야 한다는 상호 관계적 측면을 강조하는 번역계의 흐름에 발맞추어 이제는 그 기능상의 대응이 문학적-수사학적 접근을 통해 문학적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감정적, 정서적, 교훈적, 신학적인 총체적 대응효과를 수용언어의 독자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을 활짝 열어준 것이다. 구체적으로 벤투란트는 장르에서 장르로의(genre-for-genre) 번역을 번역작업의 첫 단계에서 시도함으로써 수용언어에서 성서문학에 가장 가까운 문학 양식을 찾아 표현토록 하고 이후에 성서 주석적 작업과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제안함으로써 성서문학의 수사학을 충분히 번역문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기능 동등성 이론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지적

1) Timothy Wilt, ed., *Bible Translation: Frames of Reference*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2003).

되어야 하겠다. 먼저, 원래의 성서 본문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예단이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문학적-수사학적 분석은 자칫 성서의 구성적 기술과 형상화 기술에 치중한 나머지 성서의 역사적 연구를 통해 드러나는 실체와 더 나아가 초월적인 계시성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벤트란트는 수사적 기술과 상세한 문학적 장치들에 대한 지나친 집중으로 인해 성서 본래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번역자에게 주의시키고 있다(94쪽). 그러나 본문의 기능을 처음부터 의식할 때에 본문 분석의 방향이 편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이 지적되어야 한다. 벤트란트 또한 이러한 문제를 의식, 장르 중심의 번역 초고 이후 주석가와 비평가의 수정 보완이 계속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고대 히브리어와 코이네 그리스어를 통해서 기록된 성서의 수사학적 메시지를 얼마나 수용언어들의 문학적 장르들을 통해서 거의 동일한 선포의 효과와 감동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오히려 형식 중심의 번역으로 인하여 내용 중심의 번역보다도 그 본질적인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더군다나 성서의 수사학적 기법에 대한 번역자의 판단이 얼마나 성서의 진리성을 담보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는 오히려 문학적-수사학적 번역이 문자 중심의 번역에 비해 번역자의 자의성이 더 개입되는 여지를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번역자의 자의성과 관련된 벤트란트의 논의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는 그가 번역계획에 있어서 수용자들의 상황과 반응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고 있다는 데 있다. 물론, 문학적-수사학적 번역은 독자들의 문학적 수용 정도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하지만 바로 이 문제로 인해 성서 본래의 의미와는 달리 독자나 또는 번역자들의 입맛에 맞는 문학적 기법과 정서적 반응에만 치중하는 성서 번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한 가지 벤트란트의 논의 가운데 발견된 모순점은 그의 수용언어 공동체에 대한 관심 자체가 문학비평 방법 가운데 독자 반응 비평(Reader Response Criticism) 방법론의 전제와 그 맥을 같이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이 비평 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벤트란트에 의하면 독자반응 비평 방법은 성서 본문 그 당시의 배경과 오늘날 독자들 사이의 부자연스러운 단속을 야기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번역의 성실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305쪽). 그렇다면 이는 독자들의 상황에 민감한 가운데 수용언어의 문학표현까지도 기능적 대응이론을 시도하는 벤트란트 자신의 견해와 모순된다. 그는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철저한 히브리어 원문의 배경과 언어학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번역계획을 수립할 때에 주장하는 것처럼 번역 계획(*Skopos*)이 처음부터 번역의 방향을 설정한다고 하는 주장 자체는 여전히 그가 독자 반응 비평 방법의 선상에

서 그의 문학적-수사학적 번역이론을 주장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끝으로, 벤투란트의 책을 통한 본 서평자의 전체적인 느낌을 기술한다면, 하나의 야심찬 계획을 본 듯한 느낌이다. 벌써 그 분량에 있어서만도 500페이지가 넘는다. 그 본래의 의도와 이를 실천적으로 적용코자 하는 노력은 훌륭하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 방법론을 성취하기 위한 길은 여전히 멀리 있는 것 같다. 그의 꼼꼼한 문학기론들 설명(2-6장)과 실제적인 적용 노력(7-11장)은 성서 번역자들에게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이론들 자체는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다양하고 다분히 기술론적(technical)인 측면이 많다. 또한 치체와 언어 가운데 다카톨로와 같은 서정시 장르의 실례는 인상적이거나 벤투란트 본인도 인정할 바, 성서의 장르로 사용되기에는 즉각적인 감정 표출과 세속적인 뉘앙스 그리고 예배에 사용되기 어려운 문체 등의 난관이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성서 본문의 진리성이 문학적 분석을 통해서 드러나는 기쁨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다. 또한 신학적인 이해와 설명이 가능하고 강단에서까지 그 말씀의 감격과 내용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학적-수사학적 해석과 문학적 수사학적 번역은 또 다른 문제이다. 문학적-수사학적 연구로 발견된 그 진리성을 다시금 또 다른 언어 형식(수용언어)으로 재구성할 때에 여전히 똑같은 문학적 감흥과 신앙적 메시지의 효과를 피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한 문학 내의 언어구조 자체의 근본적인 틀은 그 언어의 구조적 틀 안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다른 구조는 이미 다른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그의 번역이론을 특별한 성서 본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고 효과적이다. 그러나 성서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번역이론으로 채택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요어>(Keyword)

성서 번역, 성서문학, 문학적-수사학적 비평, 성서의 구성기술, 문학 기능 동등성 이론

Biblical translation, Biblical literature, literary-rhetorical criticism, structuralism, literary functional equivalence

<Abstract>

Book Review- *Translating the Literature of Scripture: A Literary-Rhetorical Approach to Bible Translation*

(Ernst R. Wendland, Dallas: SIL International, 2004)

Dr. Keun-Jo Ahn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Ernst R. Wendland introduces a theory of biblical translation that focuses on “literariness” or “rhetoricity” of the Scripture in his book, *Translating the Literature of Scripture: A Literary-Rhetorical Approach to Bible Translation*. He calls our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Bible is a collection of written documents. Each literary form conveys key messages of the contents in its particular way. The knowledge of literary techniques such as tectonicity (meaningful organization), artistry (stylistic devices), iconicity (characteristic imagery), rhetoricity (forms of argumentation) facilitate the understanding of the Scripture. Translators have to uncover the particular intention of the author who employs conventional usages of various literary genres. This literary appreciation will make it possible for translators to produce a vernacular text which may have a corresponding impact on readers as intended by the original authors.

The legitimacy of the literary-rhetorical study lies in Wendland’s agreement on the basic premise of the literary critics who focus on the literary medium of biblical texts. Without a considerate analysis of the literary types and structure, biblical interpreters might miss the close weave of meanings. Wendland’s literary-rhetorical approach is represented in *genre-for-genre* translation. Once translators discover the stylistic expression and rhetorical significance of a text, they should find the closest genre in a given target language that delivers comparable effects. For instance, Wendland attempts to translate a lament psalm in the Old Testament into *ndakatulo*, a lyric form of Chichewa, an African language.

Detailed techniques and steps of literary-rhetorical analysis of this book present a systematic manual toward the application of this relatively new literary approach into a translation project. However, his minutiae on each literary methodology could distract the translators from discovering *Kerygma* in the Scripture. Overall, Wendland’s program, in spite of his contribution to the understanding of the Scripture as literature, is too technical to be practical.